



부산상의 창립 130년 부산경제·한국경제 걸어온 길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부산상공회의소가 창립 130주년을 맞았다. 부산경제계를 대표하는 부산상공회의소는 최근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한국경제 재도약, 부산에서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창립 130주년 기념식을 했다. 기념식에는 지역 상공인을 비롯한 유관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념식에서 부산경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130년은 부산을 넘어 국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역사다. 1889년 부산 상공인들이 일본의 상권침탈에 맞서 전국 최초의 상공인 단체 '부산객주상법회사'를 설립했다. 해방 뒤에는 민족경제를 함께 일구었고, 한국전쟁기에는 전국의 피난민을 포용하며 원조물자를 바탕으로 사업화의 기반을 다졌다.

전쟁 이후 합판, 신발, 고무 등 수출주도형 경공업을 선도하면서 1960~70년대 국가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경제적, 사회적 위상을 드높였다. 1960대 '국가 재건의 탑'으로 명명된 부산탑 건립에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던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부산상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중에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도 포함돼 있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낙후된 지역 금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1967년 부산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항도투자금융(1980년), 동해투자금융(1986년), 부산생명보험(1988년), 동남은행(1989년), 제일투자신탁(1989년) 등을 설립했다. 1999년에는 한국선물거래소 부산 유치를 성사시키면서 부산금융중심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2008년 강서구 1천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2014년 명례산업단지 조성에도 앞장섰다. 지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사업을 1992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에어부산 탄생을 주도했다. 지금은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 부품산업, 원전해체산업, 재제조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부산의 미래 비전을 위해 복합 물류산업과 관광·마이스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해 부산신항, 고속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산항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상의 130년은 부산 경제의 기록이며, 나아가 한국 경제의 역사"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금,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구심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1 7월 16일 부산상의 창립130주년 기념식
- 2 부산상의 회관
- 3 부산탑
- 4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 개장식
- 5 1982년 10월 19일 부산도시가스 준공식

